

부산지역 장년층 경영자 현황 및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2021. 6.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부산지역 장년층 경영자 현황 및 가업승계 실태 파악

○ 조사 방법

- 기초 자료 분석(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자료)
- 실태조사 설문(자기 기입식)

○ 조사 대상

- 부산상의 의원 만 60세 이상 83명(유효응답 53명)
- 동 보고서에서는 연령대별 경영자를 39세 이하를 청년층, 40~59세를 중년층, 60세 이상을 장년층으로 분류

○ 분석 내용

- 부산지역 장년층 경영자 현황
- 가업승계 실태 파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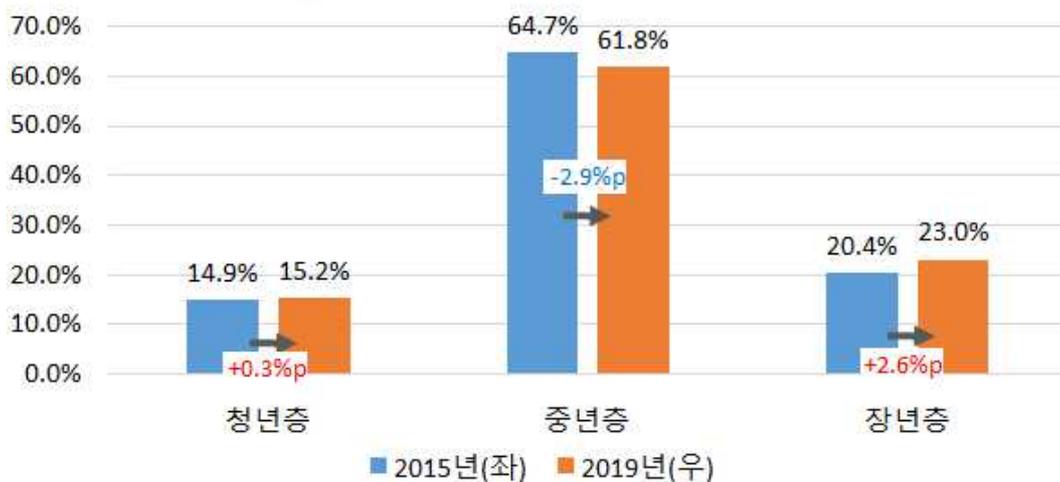
I. 장년층 경영자 현황

1. 전국 장년층 경영자 추이

□ 최근 5년간 60세 이상 장년층 경영자 비중 청/중년층 대비 큰 폭 증가

- 장년층 경영자의 비중은 19년 23.0%로 15년 20.4% 대비 2.6%p 증가
 - 반면, 청년층은 0.3%p 소폭 증가(15년 14.5% → 19년 15.2%),
오히려 중년층은 2.9%p 감소(15년 64.7% → 19년 61.8%)
- 이는 고령인구증가의 인구 구조적 측면과 맞물려 중년층에서 장년층으로의 이동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중년층을 두텁게 하는 잠재적 공급세대인 청년층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기 때문

최근 5년간 전국 경영자 연령대별 비율 비교



* 자료: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

* 참고: 청년층 39세 이하, 중년층 40~59세, 장년층 60세 이상

□ 이처럼 경영자의 연령대가 고령화되면서 기업의 영속성과 장기 발전을 위한 가업승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음

2. 부산지역 장년층 경영자 현황

□ 부산의 장년층 경영자 비중은 27.4%로 주요도시 중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반면,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년층 비중은 58.5%, 성장 동력이 될 청년층 비중은 14.1%로 최하위를 기록
- 이는 장기 성장성 관점에서 부산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

【주요도시 경영자 연령대별 사업체수 비중】

순위	주요도시	주요도시		주요도시	장년층	
		청년층	중년층			
1	인천	16.9%	광주	63.1%	부산	27.4%
2	광주	16.7%	대구	62.6%	서울	24.1%
3	서울	16.6%	울산	62.6%	울산	22.3%
4	대전	16.4%	대전	61.5%	대전	22.1%
5	대구	15.5%	인천	61.3%	대구	21.9%
6	울산	15.1%	서울	59.3%	인천	21.8%
7	부산	14.1%	부산	58.5%	광주	20.2%

* 자료: 통계청, 2019 기준(전국사업체조사)

* 참고: 각 주요도시별 전체산업 총 사업체 수 대비 연령대별 사업체수 비중

3. 부산지역 산업별 장년층 경영자 현황

□ 산업별로 살펴보면 운수 및 창고업의 장년층 비중이 가장 높음

- 운수 및 창고업의 장년층이 57.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부동산업 32.1%, 제조업 30.3% 등 순임
- 부산 전체산업의 93.4%를 차지하는 10개 산업군 중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한 8개 산업에서 장년층 경영자 비중이 전국 전체산업의 장년층 비중(23.0%)보다 높게 나타남
 - 특히 운수 및 창고업, 부동산업, 제조업 등에서 전국 전체산업 장년층 비중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

【부산지역 주요 산업별 장년층 경영자 사업체수 비중】

순위	주요 산업	장년층
1	운수 및 창고업	57.8%
2	부동산업	32.1%
3	제조업	30.3%
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5.4%
5	도매 및 소매업	25.4%
6	건설업	24.2%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23.7%
8	숙박 및 음식점업	23.6%
전국 전체산업 장년층 비중 23.0%		
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1.7%
10	교육 서비스업	9.9%

* 자료: 통계청, 2019 기준(전국사업체조사)

* 참고: 부산지역 주요 산업별 총 사업체 수 대비 장년층 사업체수 비중

* 상기 주요산업의 사업체수는 부산지역 총사업체수의 93.4%의 비중 차지

4. 부산지역 제조업 장년층 경영자 현황

□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의 경우도 장년층 경영자 비중이 30.3%로 주요 도시 중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제조업 장년층 경영자의 비중은 30.3%로 주요도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장년층 비중이 낮은 광주와 비교할 경우 약 10%나 차이 날 정도로 격차가 큰 편임. 반면 중년층(61.4%)과 청년층(8.3%)은 최하위 수준에 불과

【주요도시 제조업 경영자 연령대별 사업체수 비중】

순위	주요도시		주요도시		주요도시	
		청년층		중년층		장년층
1	대전	10.1%	광주	69.6%	부산	30.3%
2	광주	9.5%	대구	66.7%	서울	26.4%
3	울산	9.2%	인천	66.1%	인천	25.7%
4	서울	8.6%	울산	66.0%	대구	25.0%
5	대구	8.3%	대전	65.4%	울산	24.8%
6	부산	8.3%	서울	65.0%	대전	24.5%
7	인천	8.2%	부산	61.4%	광주	20.9%

* 자료: 통계청, 2019 기준(전국사업체조사)

* 참고: 각 주요도시별 제조업 총 사업체 수 대비 연령대별 사업체수 비중

□ 업종별로 살펴보면 주로 경공업과 노동집약형 업종에서의 장년층 비중이 높은 편

- 제조업종별로는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6.7%, 종이 제조업 36.6%,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35.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5.2%, 섬유 제조업 34.9% 등 노동집약산업 및 경공업에서 장년층 비중이 높게 나타남. 또한 주력 제조업종을 포함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국 제조업 장년층 비중 25.5%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임

【부산지역 제조업종별 장년층 경영자 사업체수 비중】

순위	제조업종	장년층
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6.7%
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6.6%
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5.4%
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5.2%
5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34.9%
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33.3%
7	식료품 제조업	32.7%
8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1.9%
9	1차 금속 제조업	31.0%
1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0.8%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30.0%
1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9.5%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3%
1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8.3%
1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8.1%
1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7.4%
17	기타 제품 제조업	26.0%
전국 제조업 장년층 비중 25.5%		
18	전기장비 제조업	25.4%
19	가구 제조업	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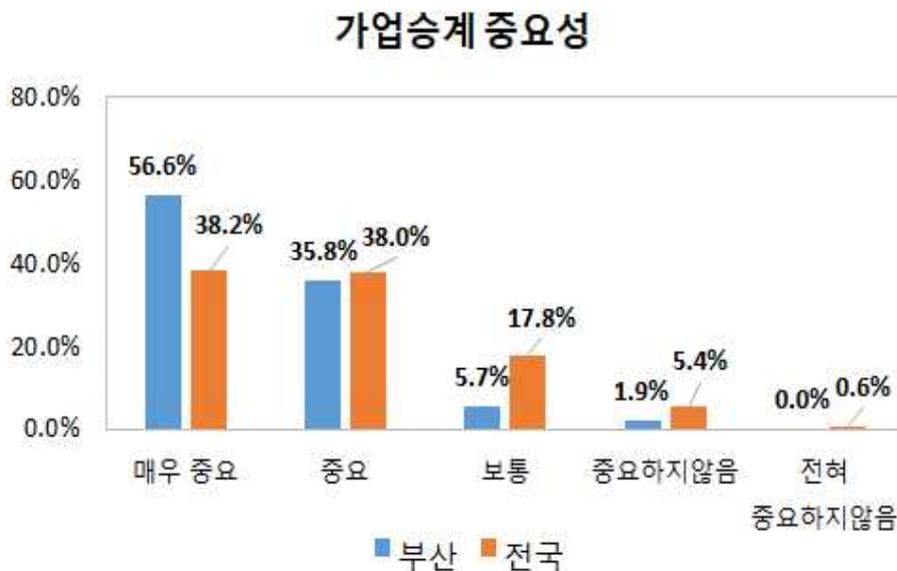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2019 기준(전국사업체조사)

* 참고: 부산지역 주요 산업별 총 사업체 수에서 장년층 사업체수 비중

Ⅱ. 부산지역 가업승계 실태 조사 결과

1.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

-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업체가 92.4%에 달하는 만큼 지역기업의 대부분은 가업승계를 중요한 경영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반면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1.9%에 불과
- 또한 전국 실태조사¹⁾ 결과 가업승계의 중요성이 76.2%인 점과 비교해봤을 때 가업승계가 부산 기업에서 경영과제로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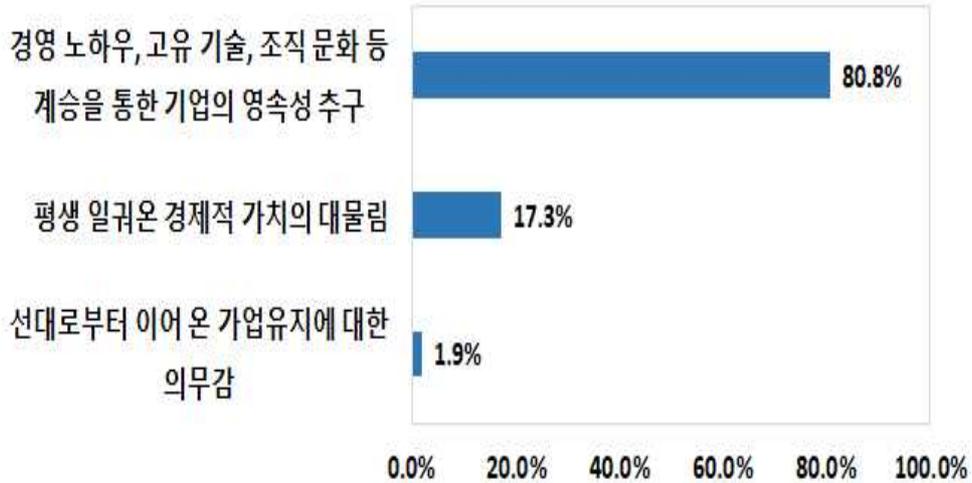


2. 가업승계의 주된 목적

- 가업승계의 주된 이유로는 경영 노하우, 고유 기술, 조직 문화 등의 계승을 통한 기업의 영속성 추구가 응답업체의 80.8%로 대다수를 차지함. 반면, 우리 사회가 가업승계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의 대물림은 17.3%에 불과함

1) 전국자료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 내용 중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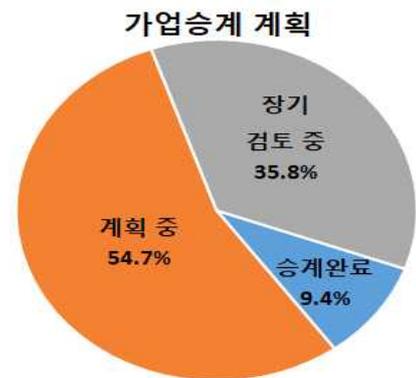
가업을 승계하려는 주된 이유



3. 가업승계 계획

□ 응답업체의 90.6%가 가업승계를 계획 (장기 검토 포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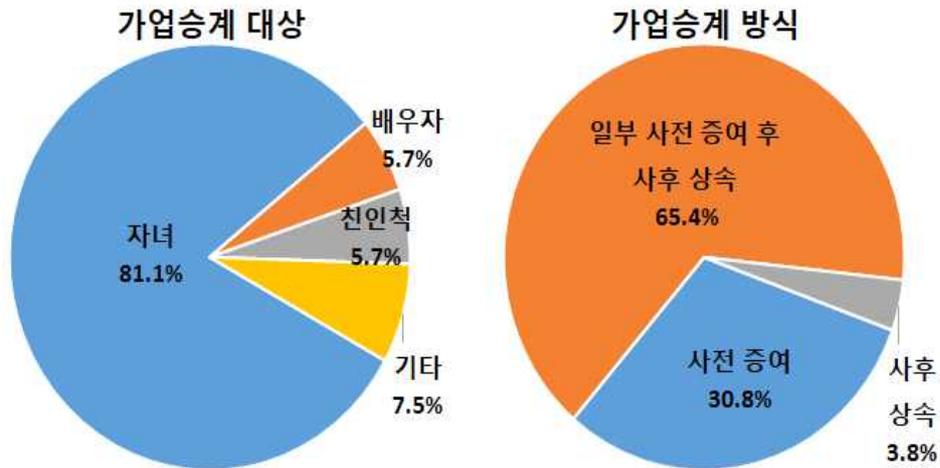
- 가업승계를 계획 중인 업체가 54.7%, 장기 검토 35.8%로 대부분이 계획/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승계를 이미 완료한 업체는 9.4%에 불과함



4. 승계대상 및 방식

□ 승계대상은 자녀, 승계방식은 일부 사전 증여 후 상속을 선호

- 가업승계 대상은 자녀가 81.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배우자 5.7%, 친인척 5.7% 등 순임
- 선호하는 승계방식으로는 일부 사전 증여 후 상속 65.4%, 사전 증여 30.8%로 사전 증여의 활용 비율이 높았으며 사후 상속은 3.8%에 불과



5. 승계시기 및 준비기간

□ 승계시점은 평균 74세, 승계 준비기간은 10년 이상 필요

- 승계를 예상하는 시점은 평균 74세²⁾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승계에 필요한 준비기간은 10년 이상이 39.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6~9년 30.2%, 3~5년 28.3%, 3년 미만 1.9% 등 순으로 응답자의 나이, 성향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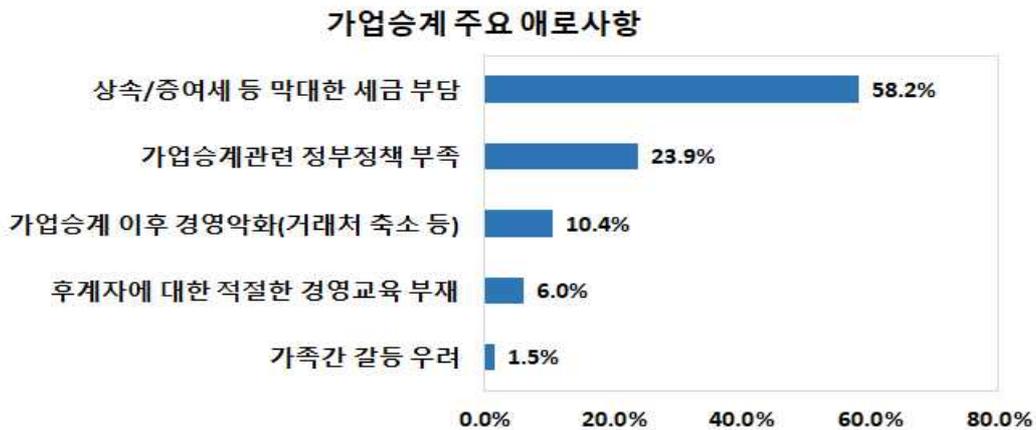


2) 응답자가 직접 기재한 승계 예상 나이를 산술 평균하여 계산한 값

6. 기업승계 애로사항

□ 고율의 세금 부담으로 인해 원활한 기업승계가 어려운 상황

- 지역기업은 기업승계를 가로막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상속/증여세 등 막대한 세금 부담(58.2%)을 꼽음. 그 다음으로는 기업승계관련 정부정책 부족 23.9%, 기업승계 이후 경영악화(거래처 축소 등) 10.4%,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 6.0% 등 순



- 이는 직계비속에 대한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OECD 회원국 내 일본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세율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의 경우 주식할증(20%)³⁾으로 인해 실질 최고세율은 60%에 육박하기 때문임

【OECD 주요국 상속세율 현황】

(자녀 상속세 최고세율순, 단위: %)

국가	자녀 상속세 최고세율	배우자	자녀	부모	제3자
일본	55	55	55	55	55
한국	50	50	50	50	50
프랑스	45	비과세	45	45	60
미국	40	40	40	40	40
영국	40	비과세	40	40	40
독일	30	30	30	30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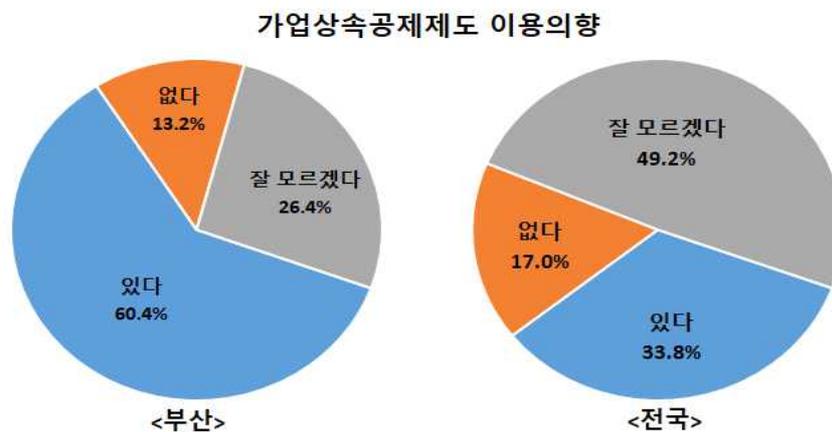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7, OECD회원국의 조세통계로 본 국제동향)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세금산정을 위한 재산가액 평가 시 최대주주의 경우 주식가격에 20%를 가산하도록 규정

7. 가업승계지원제도 활용 및 애로

□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를 활용하려는 의향은 높은 편

- 지역기업의 60.4%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해 잘 모르겠다 26.4%, 이용할 의향이 없다 13.2%를 응답
- 전국 실태조사⁴⁾ 결과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 의향 33.8%, 제도에 대해 잘 모르겠다 49.2%인 점과 비교해보면 부산이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에 적극적이며 제도에 대한 이해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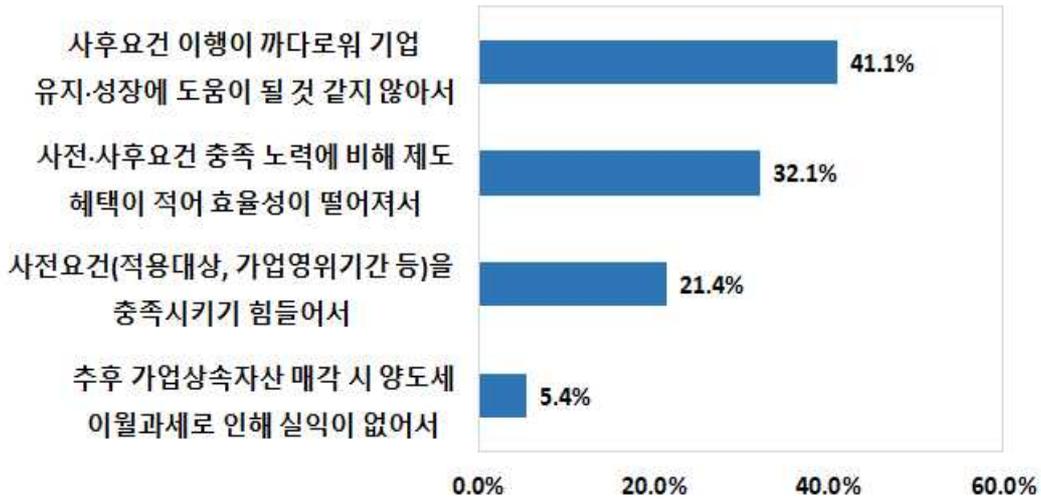


□ 반면, 기업의 높은 활용의향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질적 활용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상속공제제도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까다로운 사후 요건 이행이 41.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전/사후 요건 충족 노력 대비 제도혜택이 적음 32.1%, 사전요건 충족 어려움 21.4% 등 순
 - 현재 원활한 가업승계지원을 위해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지만 적용대상이 일정규모의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사전/사후관리요건에 대한 이행이 까다로워 활용에 애로가 있음

4) 전국자료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 내용 중 발췌

가업상속공제제도 주요 애로사항



【가업상속공제제도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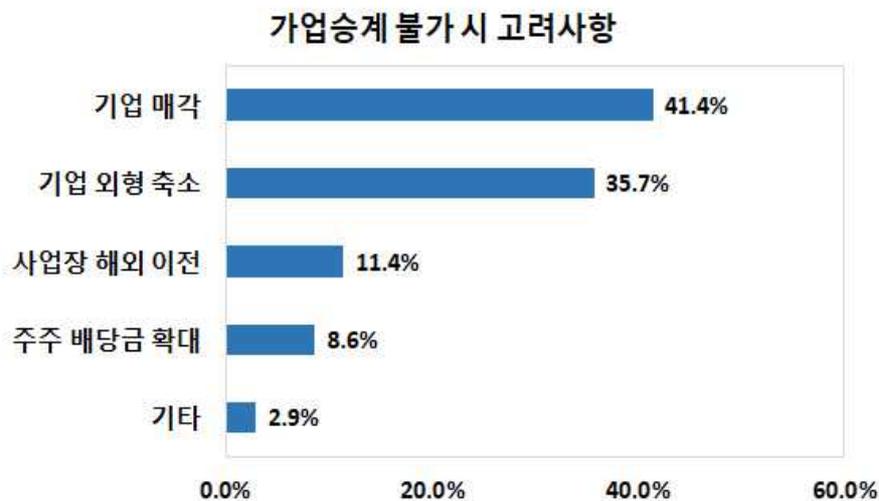
구분	내용						
적용대상	- 자산 5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가업영위기간 등 사전요건	- 피상속인: 계속 경영기간(최대주주, 대표이사 재직) 10년 - 상속인: 18세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 종사						
공제액	- 피상속인의 경영유지기간에 따라 상이 <table border="1"> <thead> <tr> <th>10년 이상 20년 미만</th> <th>20년이상 30년 미만</th> <th>30년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200억원</td> <td>300억원</td> <td>500억원</td> </tr> </tbody> </table>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200억원	300억원	500억원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200억원	300억원	500억원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7년 : 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 금지 : 상속인의 가업 종사 및 지분 유지, 업종 유지 : 매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 또는 총급여액 80% 유지 (단, 7년 평균고용 또는 총급여액 100% 유지)						

*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8. 가업승계 대안

□ 가업승계 불가 시 기업 매각이나 기업 외형 축소를 우선적으로 고려

- 지역기업은 가업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고려사항으로 기업 매각 (41.4%)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업 외형 축소 35.7%, 사업장 해외 이전 11.4%, 주주배당금 확대 8.6% 등 순
- 결국 가업승계에 대한 과중한 세금 부담은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감소시켜 해외자본에 경영권 매각, 사업장 해외 이전 등 국부 유출 및 경제 성장동력 상실 문제로 이어지거나 가업승계를 추진하더라도 기업 외형 축소, 주주 배당금 증가 등 기업의 부실화가 예상됨



Ⅲ. 정책과제

- **가업승계는 단순 부의 상속이 목적이 아닌 기술의 상속을 통한 기업의 지속 발전 및 지역경제 활력 도모에 의미를 가짐**
 - 특히 가업승계가 원활히 추진될 경우 고용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상속세 감면 등 각종 요건 완화로 생긴 여유 재원으로 신규 투자가 가능해 기업의 지속 발전 및 지역경제 활력 도모
- **가업승계 시 상속세 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주식 할증과세 폐지 검토**
 - OECD 17개국의 직계비속 상속세율 평균치 26% 수준으로 세율 인하 검토
- **또한,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공제제도의 사전/사후관리 요건 완화 필요**
 - 모든 중소기업이 가업승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 확대
 - 또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최대주주, 대표이사 재직 포함)을 5년 이상(현행 10년 이상)으로 축소
 - 공제액을 확대하고 피상속인의 업력에 따른 공제한도를 중소기업 평균업력(약 12년)에 부합하도록 현실화
- **상속 전 가업승계주식에 대해 증여세 과세 유예 후 상속 시 정산 과세 제도 도입**
 - 가업승계를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사전 증여 활용률이 높은 만큼 피상속인의 계획적인 가업승계지원을 위해 도입 필요
-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공장을 신/증설한 대기업에 대해 가업상속세 인센티브 제공 검토**
 - 기업 유치가 필요한 지방과 상속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는 대기업간의 상생협력 계기 마련 및 수도권 경제력 집중완화를 통한 국가균형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 기대